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교육부터 체험·실습에 채용까지

## 젊은 인재 양성으로 국내 車 산업 동반성장

독일식 일·학습 병행 아우스빌동  
국내대학12곳서 모바일 아카데미  
車 정비전문가 양성 AMT 등 도입  
특화된 전문성 지역사회발전 기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글로벌 고급 자동차 브랜드라는 점을 앞세워 특화된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자동차 교육과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아우스빌동' ▲국내 대학에 자동차 관련 노하우를 제공하는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아카데미' ▲자동차 정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AMT' 등 3가지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내 젊은 자동차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식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아우스빌동'은 직업과 교육을 융합한 독일의 선진 기술인력 양성과정으로 국내 자동차 정비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아우토 메카트로니카'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 학생을 모집하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3년 동안 현장 및 이론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 전문 커리큘럼을 이수한다.

특히 교육생들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 독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AMT 프로그램(왼쪽)과 모바일 아카데미



일 인증 교육을 이수한 전문 트레이너 및 대학 교수진과의 협력을 통해 커리큘럼에 따라 기업 현장 실무 교육 및 대학 이론 교육을 함께 받게 된다.

과정 수료 후에는 국내 협력 대학의 전문 학사 학위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부여하는 교육 인증, 독일연방 상공회의소 아우스빌동 수료증도 함께 획득하게 된다.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아카데미'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기술력과 글로벌 교육 노하우를 국내 대학 자동차 관련 학과에 직접 제공하는 산학협동 프로그램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 공헌위원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 2014년부터 국내 자동차 관련 대학 12곳에 이론 및 현장 실습 교육, 실습용 차량 등을 제공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81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소정의 장학금 및 우수 학생들에게 독일 본사 견학 기회도 지원해 왔다.

또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아카데미'

미 경력개발 워크숍'을 개최해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기술 체험뿐만 아니라 직무 소개 및 직종 심화 멘토링 등 자동차 관련 전공 졸업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메르세데스-벤츠 AMT 프로그램'은 다임러 그룹의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 환경에 맞춘 전문 정비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독일에서 인증 받은 전담 트레이너가 자동차 기초교육 및 특화교육, 최신 차량에 대한 기술 교육 등을 진행한다.

2년제 이상 대학의 자동차 관련 학과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약 15개월 동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트레이닝 아카데미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게 된다.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모든 졸업생들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인 시스템 테크니션 자격을 획득하고,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및 서비스센터 채용을

보장 받게 된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2015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메르세데스-벤츠 트레이닝 아카데미'를 아시아 최초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 수입차 업계 교육 관련 시설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메르세데스-벤츠 트레이닝 아카데미는 연 최대 1만 2000명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승용 및 상용 관련 기술, 제품, 판매 등 분야별 전문 교육이 가능하도록 각종 인프라와 교육 장비를 갖췄다.

이 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인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키즈' 및 국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스포츠 유망주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인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엔 드림' 등을 통해 전문 양성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 대한민국 SNS대상 2년연속 '종합대상'

LG유플러스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SNS대상 2020'에서 기업부문 최고상인 종합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SNS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기업 및 공공기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SNS 활용현황을 평가해 고객,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기업, 기관을 알리고 올바른 SNS 활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진행 중이다.

심사는 ▲SNS활용지수(SNSi)를 통한 정량평가(30%) ▲산학연 전문가 15여명이 참가한 전문가 평가(40%) ▲참여기업 및 기관 SNS전문가가 타 분야를 평가하는 내부전문가 평가(20%) ▲자체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사용자투표(10%) 결과를 종합해 이뤄졌다.

LG유플러스는 심사항목 전체 부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다양 한 채널을 활용한 양방향 고객 소통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기업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2년 연속 종합대상을 받은 기업은 LG유플러스가 최초다.

/김나인 기자



LG유플러스

## '아이폰 수리비' 할인 1만5000원으로 확대

LG유플러스는 자사 아이폰(iPhone e) 이용자의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 투바(TUV A)와 함께 수리비 할인 혜택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애플의 제품을 이용하는 LG유플러스 가입자는 투바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횟수에 상관없이 1만 2000원 수리비 할인을 받아왔다. 특히 8월에는 1400여 명의 고객이 할인혜택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투바와 손잡고 10월부터는 수리비 할인액을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투바의 서비스센터는 전국 15곳에서 광주, 군산 등을 포함해 점진적으로 서비스센터 확장할 예정이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U+고객센터' 앱 또는 'U+멤버스' 앱을 실행한 뒤 'U+아이폰 수리비 할인'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LG유플러스의 매장에서 수리비 할인쿠폰을 받아 투바 서비스센터에 제시하면 된다. 주변 지역에 투바 서비스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에 A/S대행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수리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 SKT,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스타트업 5곳 지원

키스위·다비오·시드로닉스 등  
내년까지 공동사업 기회 모색

SK텔레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기술, 사업을 가진 스타트업 5곳 선발을 마치고 내년까지 이 기업들과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SKT는 지난 6월 글로벌 파트너 발굴 및 협력 프로그램인 TEAC(TIP에 코시스템 엑셀러레이션 센터)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 함께 개발할 북미, 아시아 내 유망 기업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19개국 63개 기업이 참여했다.

'TEAC'은 2016년 SK텔레콤, 페이스북, 인텔, 노키아, 도이치텔레콤 등 글로벌 ICT기업들이 차세대 통신 인프



8일 서울 을지로 SKT 본사에서 하형일 SKT코퍼레이트2센터장(왼쪽), 김윤 CTO 등이 도이치텔레콤, TIP, 글로벌 통신사 임원들과 온라인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회의를 가졌다. /SKT

라 개발을 위해 설립한 연합체 TIP의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이다.

두 달 간의 선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은 ▲비대면 라이브 콘서트 스트리밍 기업 '키스위(Kiswe, 미국)' ▲AI 분석을 활용 실내 측위 솔루션을 보유한 '다비오(Dabeo, 한국)' ▲AI 비전 분석 기반 선박 접안 모

니터링 솔루션의 '시드로닉스(Seadronix, 한국)' ▲다중카메라 라이브 중계 방송의 '39도씨(39degC, 한국)' ▲라스트마일 구간의 비전 기반 경로 분석 및 배달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뉴빌리티(Neubility, 한국)' 등 5곳이다.

SKT는 키스위가 준비 중인 비대면

K-PoP 콘서트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공연 데이터 업로드를 위한 5G 기술을 지원한다. 또 시드로닉스에게 5G 및 MEC인프라를 개방해 항만에 접안하는 대형 선박의 위험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비오는 5G·MEC 인프라를 활용해, 박물관 방문객 대상 실내 위치 기반의 AR 게임이나 전시회 방문객의 현 위치를 파악해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SKT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도이치텔레콤, TIP, 페이스북, 텔레포니카, 보다폰 등과 함께 킥오프 미팅을 지난 8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진행했다. TEAC 독일을 운영하는 도이치텔레콤은 SKT와 마찬가지로 유럽 등지에서 언택트 스타트업 5곳을 선발했다.

/김나인 기자 silkn@

## LG 롤러블 TV 이달 말부터 본격 판매

시그니처 올레드 R 출시 티저 공개

롤러블 TV가 드디어 세상으로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9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 '시그니처 올레드 R 출시 티저'를 업로드했다. 이날 오후



LG전자 시그니처 올레드 R 출시 티저 영상.

티저 영상은 정밀하게 마감된 제품 표면을 클로즈업하면서 화면이 말려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어서 'ROLLING SOON'

LLING SOON(롤링 순),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출시가 임박했음을 드러낸다.

LG전자는 VVIP 고객 대상 사전 판매를 진행한 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격은 1억원을 넘을 전망으로, 실제 소비자 층은 국내외 부호에 한정돼 전시 물량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웅 기자 juk@